

‘매각 불발’ 넥슨의 넥스트 비전... 인재영입 통한 재도약

“누가 나한테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느냐 그러면, 늘 부담은 크지만 일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해요. 그중 가장 큰 게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차에 태우고 물어봐요. 어디쯤 같이 가겠느냐고.”

넥슨 기업자서전인 ‘플레이’에 실린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의 말 중 일부이다. 사람이 자산인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인재 확보 전쟁이 필수다. 국내 대표 게임사로 성장한 넥슨의 원동력 또한 ‘사람’이었다. 넥슨 매각 불발 이후 조직개편을 진행하며 김 회장이 또 다시 인재 영입으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넥슨은 온라인쇼핑몰 위메프의 모회사인 윈더홀딩스에 350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의 핵심은 허민 윈더홀딩스 대표다. 허민

넥슨, 윈더홀딩스에 3500억 투자
투자 핵심, 허민 윈더홀딩스 대표
“허민 대표, 넥슨 경쟁력 제고 도움”

김정주 NXC 회장.

대표는 넥슨의 대표 게이머이자 글로벌 히트작인 ‘던전앤파이터’를 개발한 주역이다.

이정현 넥슨 대표이사는 “게임에 대한 허민 대표의 높은 열정과 통찰력은 앞으로 넥슨의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가 매각 불발 이후 흔들



/NXC

리는 넥슨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번 투자는 김정주 NXC 회장이 또 다시 인재 영입을 위해 베틀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허 대표가 이끄는 게임 업체 네오플을 38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매출 448억원에 불과했던 네오플

에 베틀하기에는 큰 액수였지만, 결국 김 회장의 눈이 정확했다는 평을 받았다. 당시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를 운영했고, 이 게임은 현재 넥슨의 캐시카우가 됐다. 실제 올 상반기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매출은 전체 회사 매출의 39%를 차지한다. 이후에도 김 회장은 서울대학교 동문이기도 한 허 대표의 위메프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인연을 지속해왔다.

M&A의 귀재로 통하는 김 회장은 2004년 ‘메이플스토리’를 개발한 위젯인수를 시작으로 회사 몸집을 키워왔다. 인재 영입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넥슨 출신 이승찬 전 위젯 사장이 ‘메이플스토리’를 성공시키자 김 회장은 위젯 인수를 통해 다시 그를 넥슨으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이승찬 전 사장은 다시 넥슨을 나갔지만, 메이플스토리는 여전히 넥슨의 ‘효자 게임’ 중

하나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원 넥슨코리아 신규개발 총괄 부사장 또한 넥슨에 합류하고 이후 회사를 떠나 2010년 핑소프트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2013년 넥슨이 핑소프트 인수에 나서며 다시 ‘친정’으로 복귀한 바 있다.

넥슨이 또 다시 투자를 통한 인재 수혈로 재도약 할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다. 넥슨은 앞서 ‘페리아 연대기’, ‘프로젝트G’ 등 내부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는 이유로 14년 만에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불참도 선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마땅한 신작 없이 정체를 겪었다는 평을 듣는 넥슨에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중기유통센터·소진공, 소상공인 제품 판매지원 “V-커머스 활용해 소상공인 자생력 UP”

홈쇼핑 입점 지원·다양한 판로 개척

중기유통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떠오른 V-커머스를 활용, 200개사의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 위메프코리아, CJ ENM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의 국내 V-커머스 입점지원 부문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V-커머스 지원 및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의 3차 모집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 정진수 대표는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판로에 대한 소상공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통 트렌드인 V-커머스를 활용해 소상공인 자생력 향상에 힘쓰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귀뚜라미, 배우 지진희 모델 새 TV광고

귀뚜라미는 배우 지진희를 모델로 한 귀뚜라미보일러의 새로운 TV 광고를 오는 12일부터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친환경 콘텐싱 보일러도 역시 귀뚜라미’라는 주제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거꾸로 NEW 콘텐싱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면 최대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

았다.

영상은 서울 마곡동 ‘귀뚜라미 냉난방 기술연구소’를 방문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거꾸로 타는 친환경 콘텐싱 보일러’ 구매 혜택을 소개하는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광고 모델에는 최근 인기리에 끝난 TV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주연을 맡은 중년 남성 배우인 지진희를 발탁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샘, 책상·의자 등 최대 30% 할인

한샘몰, 이달 말까지 이벤트 진행

한샘은 온라인 쇼핑몰 한샘몰에서 새 학기를 맞아 이달 30일까지 책상, 책장, 의자 등 자녀방 가구를 최대 30% 할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샘책장’은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샘책장 5단 120cm’는 시공기사 방문설치 제품 기준 15% 할인된 11만5000원에, DIY 제품은 10% 할인된 9만5000원에 각각 만나

볼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된다.

‘샘 책상’은 최대 20% 할인한다. ‘샘 전면책상세트 120cm’는 20% 할인된 23만5000원에, ‘샘 책상 하부서랍형 150cm’는 10% 할인된 23만7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책상의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샘스마트UP 책상의자 DIY’는 20% 저렴한 13만44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

식품업계는 지금 친환경 패키지 ‘대변신’

개정안 내년 부터 본격 시행
재활용 어려운 라벨 사용금지

식품업계가 친환경 패키지로 변신을 앞두고 분주하다. 내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를 쓴 페트병 라벨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연말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친환경 패키지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기존 유색 병 몸체가 무색으로 교체해야 하고, 라벨도 쉽게 제거돼야 한다.

코카콜라는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스프라이트의 기존 초록색 페트병을 재활용에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전면 교체했다. 코카콜라는 기존 사이다의 초록색 페트병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인 점을 고려해,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재질의 무색 페트병을 사용했으며, 스프라이트 모든 용량의 제품에 적용됐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리뉴얼된 스프라이트 투명 패키지는 모든 용량에 적용했다.

웅진식품도 환경 보호 동참을 위해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친환경 패키지 적용에 나섰다. 빅



에코소브레 샘 제품

/동원시스템즈

토리아의 용기를 기존 옥색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하고,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중 절취선을 적용한 에코 라벨로 변경했다. 이번 패키지 교체는 최근 출시된 ‘빅토리아 수박’에 우선 적용됐다. 추후 순차적으로 빅토리아의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들이 환경 보호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아이시스 평화공원산림수’에 분리가 편한 ‘에코 탭’ 라벨을 적용했다. 에코 탭 라벨은 라벨 끝부분 전체가 접착돼 분리가 다소 어려운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 라벨 접착면의 상단 끝부분만 비접착 에코 탭이 적용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잡고 쉽게 라벨 제거 후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 롯데칠성음료는 그동안 정확한 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아 페트병 분리 배출률이 낮았고 이로 인해 재활용 처리 비용 상승 및 재활용 효율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하고, 라벨 분리가 더 편한 에코 탭 라벨 도입을 결정했다.

제주개발공사도 제주삼다수 패키지 라벨에 분리표시 도입도 앞두고 있다. 라벨분리 표시는 소비자들 직접 라벨을 제거한 뒤 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는 10월 제주삼다수 500ml 제품에 적용을 시작한 뒤 전 제품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이다. 이 외에도 페트병을 단일 재질의 무색병으로 전환해 재활용성을 높이는 가 하면, 라벨과 병마개를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적용해 재활용과정에서 분리가 쉽도록 했다.

오리온은 지난 2017년에는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적 포장재를 개발했다. 제조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총미연소탄화수소(THC)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을 기존 대비 각각 83%, 75% 감소시켜 소비자와 생산 근로자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다.

동원시스템즈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생분해가 가능하면서도, 내용물에 대한 안전성까지 뛰어난 신소재 식품 파우치 ‘에코소브레’를 출시했다. ‘에코소브레’는 지금까지 식품 파우치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한 신소재 파우치다. 동원시스템즈가 약 1년에 걸친 소재 연구 끝에 철저히 국내 기업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에코소브레’는 친환경적이며 외부 차단성까지 높은 특수 종이 소재와 자체 개발한 생분해 필름을 재료로, 독자적인 접착기술과 코팅기술을 도입해 탄생한 신소재 파우치다. 제조 공정에서도 수성 잉크 인쇄와 무용제 접착 등 친환경 공정을 적용해 2년 내 약 90%가 생분해가 가능하며, 외부 차단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획기적인 제품이다.

/박인용기자 parkiu7854@



스프라이트 친환경 무색 페트병

/코카콜라